

월요광장



김형중
조선대 교수·문학평론가

달변보다 늘변을 신뢰하고, 장광설보다 짧은 독설을 선호하는 편이다. 가령 책 아무 데나 펼쳐 봐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에밀 시오랑의 이런 문장들……. “프로 메테우스가 요즘 시대에 살았더라면 야당 국회의원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진화이다”(독설의 광세). “원하는 순간에 자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만,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게 된다”(태어났음의 불편함). 킥킥득, 통쾌발랄! 이런 겸유주의가 따로 없다. 실증을 잘 내는 편인 나이지만, 그래서 그의 책들만은 항상 손 닿을 만한 곳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펼쳐 보곤 한다. 킥킥거리기 위한 독서라니, 누군가에게는 약취미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고백하자면 내겐 이런 루틴도 있다. 내 연구실이 있는 층에 남자는 나 하나여서 남자 화장실을 거의 혼자 사용한다. 그곳에는 소변기가 여섯 개 설치되어 있는데(그 중 하나는 고장이다), 벽의 눈높이쯤에 이런 잡언들이 붙어 있다. “한가한 인생과 할 일 없는 인생은 다르다”.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 “인간은 자기 의지에 따라 위대해지기도 하고, 보잘것없어지기도 한다”. 진부함이 곧 악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말에 백 퍼센트 동의하는 편이니, 나는 저런 문장들 뒤에 몇 마디 덧붙여

수필의 향기



정선
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요즘 내가 관심을 갖고 되뇌는 말이 있다. 시인 선배가 지향하는 ‘무관심, 무계획, 무책임’이다. 3무(無)라……. 끝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잘 사는 방법이지 싶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혹은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아니면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했던 시간들. 내 가슴은 굳어 갖고 뇌는 푸석푸석해졌다.

지금은 망가진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여기에 ‘무신경’을 보태어 4무(無)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일종의 도파성 방어기제일까?

무관심, 애정이 없거나 방임하는 상태. 어떤 대상이 나 일에 대해 관심을 쏟으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감정 소비도 많다.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되레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다.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스트레스와 관심이 소용없다고 느낄 때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다가도 무관심하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감정을 지닌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럽다. 무관심하면 인간관계가 저절로 정리가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관심은 그저 가슴속에 소중한 일기장처럼 간직하고 진심이 어린 ‘따뜻한 무

기고



김정섭
(재)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장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 RE100, 순환경제, ESG를 넘어 본격적인 ‘기후산업 경쟁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산업·에너지·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녹색산업 전략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 기후기술 개발, 탄소감축 시장 활성화, 블루카본 산업화, 미래형 환경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 과제로 제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환경정책은 행정의 일부가 아니라 산업·기술·수출·삶의 질을 관통하는 국가 전략 분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남도는 그 누구보다 앞서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풍부한 탄소흡수원, 재생에너

화장실 인문학 입문

그 진부함을 악의적으로 비웃어 주곤 한다(거의 자동적이다). “한가한 인생과 할 일 없는 인생은 다르다. 물론 실업률이 0%일 때 말이지만”.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 산이 인간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인간은 자기 의지에 따라 위대해지기도 하고, 보잘것없어지기도 한다. 불가사의한 것은 그런데도 도대체 왜 인간의 역사는 이토록 보잘것 없느냐는 점이다”.

연상은 꼬리를 문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데 너무 일찍 죽은 이상이나 고초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까?”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아오른다. 문제는 절대정신이 개화하고 해질 자선이 죽은 후에도 황혼이 매일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단 아버지의 재력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대나무는 휘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 때리는 회초리가 된다”. 등등.

화장실에서 불일 보는 주체에 좀 이상한 루틴이긴 하지만, 그렇게 뼈박하기만 해서야 되겠냐고 나무라지는 말아줬으면 싶다. 좀 과장되게 말해 나는 저런 루틴이 일종의 ‘인문학 입문’이라고 생각한다. 화장실에서도 유행하는 저와 같은 잡언들은 사실 알고 보면 ‘이데올로기’의 결정체다. 일하면서도 한가한 삶을 영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나 ‘한가한’ 삶과 ‘할 일 없는’ 삶 사이에 가치의 위계를 도입하는 순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은 순식간에 투저가 된다.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다독이는 순간, 실패의 원인은 실패를 양산하는 사회적 구조로부터 개인의 의지 문제로 옮겨간다. 실패의 개인화, 노역의 신성화,

이것들은 분명 신자유주의가 선호할 만한 이데올로기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이 세계와 맺는 상상적 관계다”. 좀 풀어서 말해보자. 당연히게도 우리는 모두 타인이나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알튀세르에 따를 때, 문제는 그 관계가 실제적이지 않고 ‘상상적’이란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부분은 세계 속 자신의 위치를 잘못 파악한다.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수천 전 전 박달나무 아래 나라를 세웠다는 단군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뼈박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단군은 ‘상상적으로’는 건재한데, 왜냐하면 그의 이름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는 ‘우리’, 혹은 ‘(혈통에 기반한) 단일 민족’으로 호명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민족주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단군과 맺은 상상적 관계’다.

그뿐일까? ‘소확행’은 “크게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행복’과 맺은 상상적 관계”다. ‘치유의 인문학’은 “항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즉 항상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럴싸한 달변과 맺은 상상적 관계”다. 헌법은 “한 번도 만인이 법 앞에 평등했던 적이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국가와 맺은 상상적 관계”다. 보형은 “확률상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행 앞에 내던져진 사람들이 자본과 맺은 상상적 관계”다. 등등.

진부한 잡언들이 붙어 있는 화장실에 들를 때마다 내가 ‘인문학 입문서’ 앞에서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렇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관심’으로 응원하자.

무계획의 날들은 유동적이다. 고여 있는 물은 썩듯이 일상생활도 이쪽저쪽으로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그래야 굼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는다. 무계획 속에는 여유가 있고 낭만이 깃든다. 나를 옥죄는 실패, 좌절, 절망이라는 거머리 같은 단어들에 떨어진다. 계획 속에는 복병이 숨어 있다. 주말인 오늘도 남편의 계획은 어그러졌다. 스기 타다 다친 친구가 입원해서 약속이 무산되고 다음 주에 예정된 출장이 갑자기 내일로 당겨졌다. 계획은 어긋나야 제맛, 인생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것이 인생인가.

무책임한 사람은 신간(身幹)이 편하다. 어떤 일을 벌이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잡지 편집 일을 하다가 접었고, 내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한다. 책임질 일이 줄어드니 두통과 과민성 복통이 사라지고, 웃음과 유머가 생겼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남을 배려하다가 오히려 욕먹고 손해 보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면 책임질 일을 회피하게 된다. 인쇄 직전까지 원고가 늦은들, 아무 연락 없이 약속 시간에 늦은들, 듣기 불편한 농담인데 어떠랴, ‘천하태평’에 넉살 좋은 사람들이 부럽다.

무신경, 감각이나 느낌 따위가 매우 둔함. 이것은 내게 절실했다. 내 몸에는 축수가 많다. 그동안 겪은 일들이 다사다난해서 그럴까.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것들이 내 예민과 심각의 그물에 걸린다. 뇌도 속일 수 있고, 감정도 습관이나 연습하면 고쳐진다. 요즘엔 ‘괜찮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하면서 스스로 다독인다. 타구를 칠 때는 일부러 깔깔거리며 심각한 일도 가볍게 띄운

다.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나 단순해지고 싶어서다. 어느 덧 사람들은 내가 얼굴이 밝고 명랑해서 좋다고 한다. 더욱 신경이 무너지도록 불필요한 축수를 잘라내고, 감성의 창고인 가슴을 텅텅하게 단련시켜야 한다. 그래야 뇌에 평화가 오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될 테니까.

4무(無)는 내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방패이자 조력자다. 그동안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방지하고 강하게만 만들려고 혹사시킨 것 같다. 나만의 사각 벽을 만들어 놓고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라고 수없이 명령하며 살았던 것.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무너지다가도 잘 돌아가는데 말이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이 되는 순간이 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보내고 강과 바다와 숲을 만났다. 덜 괴롭고 덜 힘든 것들과 좀 더 즐거운 것들을 쫓았다. 가슴이 메마르고 피폐해지지 않으려고. 이내 내 세상도 부풀고 넓어졌다. 자연 속에서 난 부자다. 이제는 그 사각 벽도 점점 낡고 틈이 생겨 그 틈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다. 숨이 편해지는 행복만 바보가 되었다. 나 홀로 쓸쓸하면 어땠가, 돈이 좀 부족하면 어땠가, 누가 나를 무시하다고 흥분을 어땠가.

내 세상은 작지만 포근하고 온연하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말(言)들의 채찍에 맞다가 허공에 소리치다가 버거울 때 가끔씩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조금은 무관심하고 무신경하게 책장 넘기듯 하루를 산뜻하게 넘겨 보자. 격랑의 파도가 찾아들어 삶이 보사노바 리듬을 타도록.

“네, 그래도 되지요. 그렇게 하세요.”

기후산업 경쟁시대, 전남이 열어갈 미래

지 지원, 해양·농업·에너지 산업의 융합 구조 등은 대한민에서 가장 입체적인 환경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다.

(재)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은 설립 이후 환경정책 지원, 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기술 검증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전남의 환경산업 기반을 다져왔다. 그동안 300건이 넘는 환경·기후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1000여 개 기업을 지원, 3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2025년에는 폐기물 자원화, 기후테크, 친환경 스마트팜 등 핵심 분야의 신규 국고과제 5건, 총 39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전남이 기후·환경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 또한 악취·대기·미세먼지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시험·분석·환경기술 검증 기반을 고도화하는 등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남은 단순한 환경관리 중심 지역을 넘어 기후산업 실증과 전환의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는 기후기술과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추진하고 지역 현장에서의 실증 기반을 강화하며, 블루카본과 자원순환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환경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산업을 이

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 역시 필수적인 국가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방향 제시와 더불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전남도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전남형 기후산업·기후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지자체를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환경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 연계를 고도화하고 블루카본을 기반으로 한 해양 탄소흡수 산업 모델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힘을 기울인다. 나아가 기후산업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전남의 산업구조를 미래지향적인 기후·환경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 (재)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제 환경산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은 도정의 실행 파트너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전환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환경은 준비하는 지역에 기회가 된다. 전남이 그 기회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社說

서남권 관문 공항 계기 마련한 무안 통합 공항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안 통합 공항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다. 무안 통합 공항시대는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시기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기로 한 2027년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은 국내선 전용의 광주 민간공항과 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폐쇄 직전 6개국에 9개 노선만 운항하던 무안공항으로 이원화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공항이 폐쇄된 이후로는 국제선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 주도 광주 군·민간 공항 무안 이전이 결정돼 무안공항이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거듭날 계기를 마련했다.

공항 명칭도 김대중공항이 거론되면서 파리의 샤를 드골공항이나 뉴욕의 존 F 케네디공항처럼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경쟁 관계에 놓일 뻔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것도 무안공항이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무안공항이 서남권 관문 국제공항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제주항공 참사로 폐쇄된 공항을 재개장하는 것이다. 재개장을 위한 시설 정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한다.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과 미주나 유럽 노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를 확장하는 공사도 끝나 개장만 한다면 곧바로 국제공항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이란 전제가 남아 있다. 유족들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철도조사위원회를 믿지 못해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원인 규명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선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정부가 18년 숙원이던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에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 어렵게 마련한 서남권 관문 공항 기회를 이번에는 자칫없이 이뤄내야 할 것이다.

이주민 정착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 대응해야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국가데이터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전체 인구(5180만6000명)에서 외국인이나 이민 2세 등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5.2%를 차지했다. 이주배경인구 통계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제사회에선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에 사는 사람 20명 가운데 1명 가량이 이주배경인구라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광주·전남은 외국인 비율과 얼마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지를 나타내는 ‘인구다양성 지수’가 높아 다문화사회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인구다양성 지수는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상위 지역 개수를 기준으로 하면

17개 사·도 가운데 1위다. 다불산단이 있는 영암은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21.1%로 전국 1위이고 완도와 진도는 10%를 넘는다. 광주는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의 인구다양성 지수가 전국 2위일 정도로 높다.

외국인 비율과 인구다양성 지수가 높다 는 것은 이에 맞는 통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의미다.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외국인은 사회 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이다. 전남과 같은 소멸위험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젊은 외국인 주민을 수용하고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광주·전남은 특히 인구다양성 지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 인구다양성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다. 외국인 주민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인구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無等鼓

흔히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수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예로부터 문화예술이 번성했고 향유층 또한 두터웠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예술은 시각문화, 공연문화, 문자문화로 크게 나누는 데 여행 광주는 미술, 무용, 문학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수준 높은 예술을 구현하고 후대로 이어왔다.

앞서 언급한 시각, 공연, 문자문화 외에도 뽀빠를 수 없는 분야가 있다. 바로 도자문화다. 광주 충효동 도요지, 강진 청자 도요지 등 남도에는 유서 깊은 도자 관련 유적지가 산재한다. 그뿐 아니라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도자기와 완도 해역에서 출수된 도자기를 비롯해 다량의 실물 도자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와 남도의 도자문화 외에도 한국 도자 1000년의 역사를 포괄하는 도자문화관이 최근 개관했다. 국립광주박물관 오른쪽에 들어선 도자문화관은 연면적 7137㎡에 지상 2층 규모로 총 7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지난 2018년부터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아시아 도자문화’의 첫 결실로, 한

국·중국·일본을 잇는 아시아 도자 교류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도자전시실은 국보 ‘청자상감모란국화무늬 찰미 모양 병’을 비롯해 보물 ‘백자청화산수무늬 팔각연적’ 등 한국도자 1000년의 숨결이 깃든 5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신안해저 도자전시실은 1976년부터 수중 발굴된 유물 가운데 도자기와 생활교역품 6500여 점이 관람객을 맞고 있다. 도자기가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미디어아트로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존은 현재 ‘휴지의 기억, 빛으로 피어나다’를 상영 중이다.

지금까지 K-컬처는 드라마, 영화, 노래 등에서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광주 출신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문학 분야까지 K-컬처 장르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차체에 도자문화관 개관이 K-컬처의 새로운 영역인 도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흙과 물, 불이 만나 빛어내는 신비한 도자문화는 한국문화의 원형이자 남도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손색이 없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령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